하나님의 신은 인간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 보신다

사람 속에는 서로 다른 두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이 있다

자신을 알고 상대방을 알아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중국의 '손자'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확한 말씀입니다. 즉 자신을 알고 마귀를 알아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 속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다른 하나는 마귀의 사람입니다. '나'라는 의식이 이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영생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나라는 의식은 마귀인 고로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천당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신이 마귀의 사람인지 하늘의 사람인지를 분별해서 알아보려면 마음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 교활하고 항상 이중적인 성격의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사람입니다. 솔직하지 못하고 속 다르고 겉 다른 사람은 마귀의 사람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생활을 하는 사람도 역시 마귀 사람이 중심이 되어 생활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사람이 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 빨리 마음을 바꿔서 하늘의 사람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귀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이 길을 가려고 하면 그것은 헛수고입니다. 제단에 나와도 마귀의 사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단을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반면, 하늘의 사람은 항상 희생적인 마음이 마음 바탕에 깔려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희생적인 생활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속여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잘 아느냐 하면 바로 구세주는 완전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세주는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의 사람이 되어 가지고 구세주를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구세주는 속는 척하는 거지 속는 게 아닙니다. 속는 척 하는 겁니다. 마귀를 속여야만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마귀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속일 줄 모르면 절대로 마귀를 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귀를 잘 속였기 때문에 이긴자가 된 것입니다. 마귀를 속일 줄 모르면 절대로 이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세주가 겉보기로는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마귀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을 구분 못하겠어요?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사람한테만 이슬성신을 부어 주지 마귀의 사람한테는 절대로 안 부어줍니다. 마귀의 사람한테 부어주면 그 사람이 그냥 죽어 버립니다. 마귀를 죽이는 이슬성신인고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은 마귀의 사람한테는 안 부어주고 하늘의 사람한테만 이슬성신을 부어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신(神)분별을 잘해야 이긴자가 된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신(神) 분별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긴자가 됐지 신(神)의 분별을 잘하지 못했으면 이긴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람 만날 때에도 이 사람이 마귀의 사람인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별해서 접촉을 해야지 그것을 분별도 안하고 접촉을 하다가는 마귀한테 도리어 삼킨 바가 됩니다.

이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마귀를 분별해서 알았습니다. 23살 때에 제주도 훈련소 훈련병 시절에 도둑놈을 잡았습니다. 도둑질하는 현장을 보지도 않았음에도 도둑놈의 영의 냄새를 맡아서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대장을 비롯하여 전우들이 조희성이라는 사람이 귀신도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알까 궁금하게 생각했지만 끝내 이 사람은 그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립니다. 마귀를 항상 속여야지 솔직하게 얘기했다가는 마귀한테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속인 겁니다. 스물세 살 때에 바로 이 사람이 죄 짓는 것을 구분해서 알았습니다.

구세주 조희성님

전도관 때부터 매일 새벽예배를 봤다

이 사람이 영모님으로부터 옥중발령을 받고 온양 전도관에 가니 교인이라고는 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세 사람을 데리고 전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매일 새벽제단을 쌓게 했습니다. 매일 새벽제단을 쌓으니까 매일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매일 예배를 보라고 다니엘서 12장에 씌어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를 폐하면 멸망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사람은 전도관 때부터 매일 새벽예배를 봤던 것입니다. 소사신앙촌에 살 때는 오만제단에서 새벽제단을 매일 쌓았었고 온양제단 전도사로 있을 때에도 매일 새벽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온양 전도관 교인 세 사람은 다 병든 환자였습니다. 그 환자들이 전부 은혜를 받고 깨끗이 나으니까 불이 붙어 열심히 전도를 하여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여섯명이 되고, 열두 명이 되고, 스물네 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석 달만에 삼백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도관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도관 전도사 시절에도 이슬 은혜를 내렸다

뿐만 아니라 전도관 역사상 전도사가 예배 인도를 할 때에 이슬성신 내린다는 것도 온양제단에서만 있었던 일이지 다른 제단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온양 전도관에 모인 삼백 명이 불이 붙어 예배를 보니 그 손바닥 치는 소리가 온양 시내 전체를 울릴 정도가 되어 온양에 사는 사람들이 신기해서 다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흥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영모님은 옥중에 계셨습니다. 이 사람이 유제창 전도사를 부흥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를 할 때에 찬송 인도는 이 사람이 하고 설교는 유제창 전도사가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제창 전도사가 설교를 할 때에는 교인들이 절반 이상이 다 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찬송 인도 할 때에는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유재창 전도사가 그것을 보니 설교할 맛이 안 나서 이 사람보고 "찬송 인도를 계속 하십시오. 조전도사님이 찬송인도를 하면은 식구들이 신바람이 나가지고 찬송을 부르다가도 내가 설교하면 꾸벅꾸벅 조니 내가 어찌 설교를 하겠습니까?"하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온양 전도관에서 은혜가 내린다는 소문이 천안, 둔포까지 나서 전부 온양 전도관까지 예배보러 왔습니다. 그러자 당시 천안전도관의 최성탁 전도사가 이 사람을 굉장히 미워했는데 바로 그가 협회 선우당 간사한테 가서 이 사람을 다른 데로 발령을 내 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영모님이 직접 발령을 했던 사람인고로 이제 협회 간사가 다른 데로 마음대로 발령할 수 없었습니다.

영모님이 석방될 때에도 전도관 전도사 200명이 모인 가운데 이 사람이 대표로 기도와 예배인도를 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배 인도를 하면 은혜가 되거든요. 전도사들이 은혜가 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은혜가 되는 걸 알겠죠. 그래서 전도사들이 다 이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 친구 가운데 통일교의 문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이 사람이 예배 인도만 하면 은혜가 되고 하니까 은혜자라는 걸 알고 승리제단이 자기네들이 반대하는 종교임에도 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마음이 기쁘고 좋으니까 가끔 찾아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이긴자가 된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항상 솔직하게 말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해도 진정으로 사모했지 그냥 어설프게 사모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일 정도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도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보아도 은혜창파가 됩니다. 그 제단 전체가 은혜창파가 됩니다. 이 사람이 은혜를 잡아당기는 힘이 강하니까 이 사람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전체 다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늘의 사람인 양심의 사람이 하나님을 고도로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대로 진심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체를 바치면서 움직일 때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인색하고 하나님한테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그대로 기울이는 척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씌어 있듯이 하나님의 신이 빛을 발하는 고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연재] 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피의 통일

피의 원리의 완성: 불사체가 되는 것(최종회)

유사 이래로 인간의 죽음을 의심해 본 사람이 있는가? 그야말로 죽음의 벽은 인류역사 이래 그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인간한계의 벽이라 통감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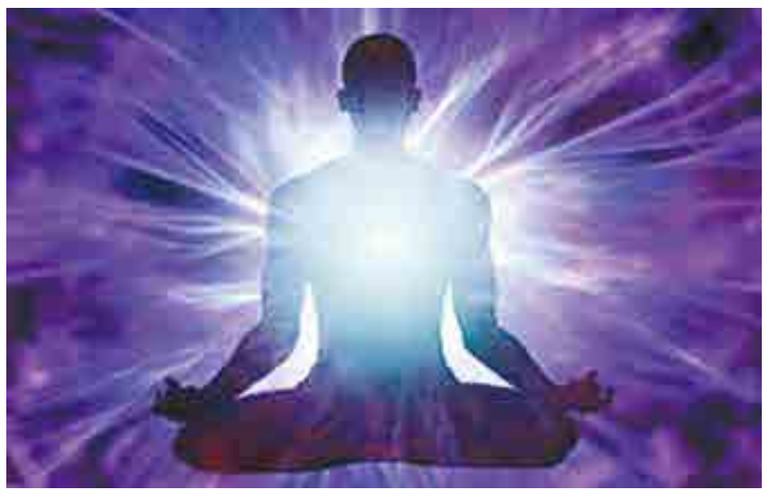
4대성인의 낡은 진리를 폐하라

그러나 이제 죽음이라는 불가항력적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피의 원리'라는 초능력의 무기를 인류 최초로 개발해 낸 분이 나온 것이다. 누구든지 이 무기를 배우고 익혀 그것을 자유자재로 사용한다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생로병사의 한계를 넘을 수 있게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된다. 진정 인류가 그렇게도 바라고 원하던 꿈과 희망이 현실화된 것이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접하게 된다면, 말로 할 수 없는 가슴 벅찬 환희의 감동과 탄성이 저절로 터져 나오게 될 것이다.

인류의 불행했던 지난날의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삶은, 태어나 먹고 자고 사랑하고 투쟁하고 우쭐하다, 조금 살만하면 늙고 병들어 죽어 왔던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 끔찍한 인생을 일찍이 직시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결코 안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어떻게든 전혀 다른 차원의 삶, 새로운 길을 갈구하고 모색했던 것이다. 이젠 추억이 되어야 할 인류의 거대한 정신적 버팀목이었던 세계 4대 성인도 그 최초의 발단은 인간의 최대 고통인 죽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젠 그분들이 일궈낸 생사관과 세계관은 이젠 종식을 고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사다리 역할을 했던 인생관 생사관 존재론을 뛰어 넘는 위대한 '영생학의 세계관'이 출현했기 때문이다. 과거 죽음의 공포와 무지에 대한 대안(代案)으로 세계 4대 성인의 사상이 필요했던 것이다. 불완전한 사상과 완전한 사상으로의 세계의 진입을 위한 그분들의 징검다리 사상을 건너, 마침내 인류의 지적 정신적 최종 목적지인 영생의 세계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죽음을 이기고 극복하는 새 시대가 우리 앞에 멋지게 펼쳐지게 된 것이다. 여전히 케케묵은 4대 성인의 정신의 틀 안에서 안주하려 고집한다는 것은 돌아가신 4대 성인이 진정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다.

지금의 우리들은 청출어람(靑出於藍)이라는 고사처럼 그분들보다 더 크고 넓은 세계로의 모험과 도전을 과감히 단행할 수준에 와 있다. 그간에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힘과 기세에 눌려 감히 영생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변화된 세상에서는 너무도 힘차고 당당하게 영생의 기치를 하늘높이 들며 외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이것은 깨어 있지 않는, 복 없는 사람에겐 납득이 안 가는 얘기다. 성경의 말씀처럼 빛의 자식, 영생을 희구하는 복 있는 사람이나 '피의 원리'가 이 땅에 전파된 지 40년이 되어가는 이즈음에 일어날 법한 사실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불사체가 된다는 것은 빛의 몸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빛의 몸이 될 때에만 영생이 되는 것이다.

진정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생각은 인류 최대의 고정관념이요, 집단의식이다.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는 한계상황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과 능력을 처참히 짓밟은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인류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죽음이라는 한계상황은 언젠가는 깨어져야 할 인류의 마지막 고정관념이자 절대믿음이다. 죽음이라는 비진리 아래서 행해진 인간의 모든 학문과 종교 예술 등은 왜곡된 것일 수밖에 없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파괴는 건설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실패 없는 곳에 성공이 있을 수 없고, 파괴없는 곳에 창조가 있을 수 없다. 오래된 낡은 관념의 집을 파괴하지 않고 온전한 영생의 관념의 집을 지을 수는 없다. 애벌레가 자신의 세계를 부정하지 않으면 아름답고 자유로운 나비가 될 수 없으며, 잉태된 어린애가 자신의 자란 모태를 박차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로의 탄생을 있을 수 없다.

피의 창조적 변화는 창조적 소수(영생주의자)에 의해 완성될 것이다

피의 원리에 의한 영생학은 바로 죽음 아래에서 행해지고 이루어진 잘못된 사상과 관념을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찬란한 영생의 문명과 문화의 새 질서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피의 원리는 그런 영생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한 기본 설명의 틀이다. 이러한 완전한 진리를 바탕으로 올바로 배우고 익혀 실천함으로써 "피의 완성" "피의 창조적 변화"의 결과인 영생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석가는 다 사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제, 세상을 바꾸는 창조적 소수(영생주의자)는 구태의연한 삶의 낡은 죽음의 관습에 빠져 있는 인류를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저 유명한 미국의 로버트 프로스트 시인은 숲 속에 서서 앞에 나 있는 두 길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지 깊은 생각에 잠겨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먼 먼 훗날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쉬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어 나는 사람이 덜 다닌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이처럼 바꿔 놓은 것입니다"라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죽음의 관념에 철저히 세뇌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告)하고 싶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해내는 용기 있는 도전자들에 의해 영생의 새 역사는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인생은 여행과도 같다는 말이 있는데,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여행과도 같다. 모든 사람이 가는 죽음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남과 다른 영생의 길을 택할 것인가? 그 답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여 영생을 쟁취한 자만이 증명할 수 있다.*

김주호 기자